

기후솔루션과 함께하는 또 다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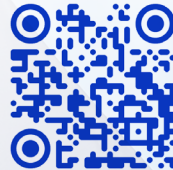
포도씨레터

매월 포도씨가 큐레이팅한
기후 뉴스와 기후솔루션
소식을 만나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기후솔루션'을 친구 추가하고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과
재미있는 행사 소식을 받아보세요.



후원 정보 확인 및 변경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후솔루션 임팩트 리포트 2025

IMPACT REPORT

기후위기를 넘어,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들

- ☎ 02-6459-0140
- ✉ donor@forourclimate.org
- 🌐 www.forourclimate.org
- 📷 https://www.instagram.com/sfoc_official/
- 📺 www.youtube.com/@SolutionsforOurClimate
- 🌐 www.linkedin.com/company/solutions-for-our-climate
- ✂ <https://x.com/forourclimate>
- 📘 <https://www.facebook.com/solutionsforourclimate>

SFO°C
Solutions for Our Climate

SFO°C
Solutions for Our Climate

기후를 위한 솔루션, 어떻게 만들까요?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문 비영리단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기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의 정책 변화와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내어 지구가 숨 쉴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변화는 후원자님의 단단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문적인 분석과 끈기 있는 캠페인으로 기후를 위한 솔루션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1 연구 및 정책 제안

복잡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2 법률 활동 및 소송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법적 전략을 실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요구합니다.



3 커뮤니케이션 및 캠페인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기후위기 심각성과 명쾌한 해결책을 알립니다. 더 많은 시민의 뜻이 기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캠페인을 펼치며, 변화를 열망하는 목소리를 모아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넓힙니다.



4 연대 및 협력

국내외 시민사회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촉구합니다. 토크콘서트나 행진처럼 시민의 목소리가 직접 닿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더 큰 기후 행동의 물결이 세상에 퍼져 나가게 합니다.





불확실성을 넘어,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기후솔루션 대표 김주진입니다.

지난 2025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당연히 지켜질 줄 알았던 기후 공약들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기도 했습니다. 한때 공고해 보였던 정책들이 재검토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후솔루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곁을 지켜 주시는 후원자님의 든든한 지지 덕분에,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국내 최대 석탄 자산 보유 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1조원 규모 그린워싱 채권 발행을 지연시켰고, 대한민국의 '2040년 석탄 퇴출 공식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바로잡아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고, 모잠비크 가스 프로젝트에 쓰일 LNG 운반선에 대한 민간 금융사의 투자를 막아냈습니다. 또한, 철강사의 고로 개수 계획에 제동을 걸었고, 석탄 수명을 늘리는 데 악용되던 암모니아 혼소 보조금 제도를 유예시켰으며, 정부가 가스 발전 시설의 메탄 누출을 직접 감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이 뒷걸음치는 상황에서도, 명확한 목표와 끈질긴 실행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2025년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바탕에는 후원자님이 계십니다. 후원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지지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올해로 기후솔루션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기후솔루션과 후원자님이 함께 만든 변화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손잡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며, 우리의 노력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후솔루션 대표 김주진 드림

우리가 함께 만든 2025년 임팩트

2025년은 국제사회의 기후 약속들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역행하는 흐름이 거센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기후솔루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연구가 되고, 캠페인이 되고, 정책을 바꿨습니다. 2025년,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를 소개합니다.

한국, 2040년 석탄 퇴출을 국제 무대에 선언하다

브라질 COP30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 탈석탄 동맹(PPCA)에 가입하고 2040년 석탄 발전 퇴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수년간 국내외 시민사회,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 논의의 장을 열어왔습니다.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과시키다

국회가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 선정과 인허가 체계를 담은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수년간 기존 인허가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계획적인 입지 지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국민연금 석탄 투자, 6년 만에 처음 줄어든다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채권 보유액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시민 400명과 함께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민연금기후행동'을 출범시키며 국민연금의 화석연료 투자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1조 원 규모 채권, 그린워싱 위험을 세계에 알리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최대 석탄 자산 보유사인 한국전력공사의 10억 달러 규모 채권이 가진 그린워싱 위험성을 글로벌 투자기관들에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싱가포르 거래소에 기후 공시 위반을 제보하고, 전 세계 4만 명의 서명을 모아 주요 투자자들에게 문제를 알렸습니다.



유럽 민간 금융기관 2곳, 모잠비크 LNG 선박 금융에서 손을 떼다

프랑스 대형 은행인 BNP파리바(BNP Paribas)와 크레디 뮤튀엘(Crédit Mutuel)이 모잠비크 LNG 운반선 프로젝트 금융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전 세계 74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운사와 금융기관에서 서한을 보내 LNG 운반선 프로젝트의 기후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포스코 고로 방식 제철에 대해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다

기후솔루션은 지역 청소년 기후소송을 지원하고 16개 단체와 공동 서한을 발송하며, 석탄을 원료로 쓰는 고로(용광로) 방식 제철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포스코가 고로 개수 전략을 전체 개수에서 부분 개수로 전환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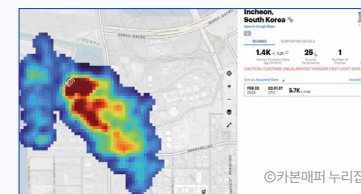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친환경으로 포장한 제도, 문을 닫다

석탄과 암모니아 혼소를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가 공식 유예됐습니다. 기후솔루션은 헌법소원 제기부터 국회 설득까지, 화석연료 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이 제도의 문제를 끊임없이 공론화해왔습니다.



위성으로 포착된 메탄 누출을 알리다

인천 LNG 기지에서 시간당 5,700kg의 메탄이 누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탄소 감시 전문 위성인 Carbon Mapper의 영상 분석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론화하여 가스 시설 메탄 관리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기후솔루션 분석, 국제해운기구 공식 보고서에 인용되다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 최종 보고서가 기후솔루션의 『2050 넷제로 비용 효율 경로』 분석을 공식 인용했습니다. 한국발 기후 연구가 국제 해운 탈탄소화 논의의 기술적 토대로 활용됐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금 축소, 국가 전력계획에 반영되다

한국 정부의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금 축소가 국가 전력 공급의 중장기 방향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바이오매스 발전량 감소가 처음으로 공식 전망치에 포함됐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수년간 연구와 현장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연결해왔습니다.



기후위기의 열쇠,
숲의 생명력을
되찾기 위한 여정

지구의 가장 거대한 탄소 흡수원인 숲은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이 기대어 사는 소중한 터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숲은 무분별한 파괴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본래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산림과 토지이용 문제에 치열하게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후솔루션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사이의 간극을 메울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너진 숲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산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은



[보고서 발간] 우리 숲을 태우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실태 고발

『우리 숲, 발전소 연기로 사라지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의 허점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버려지는 나무’를 쓴다는 명목 아래 멸종한 나무들이 대규모로 벌채되어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라지는 실태를 입증했으며, 탄소 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의 핵심 기반인 우리 숲을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후원자님과 시민 여러분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낼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2025년의 변화는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숲을 파괴하던 잘못된 보조금의 흐름을 멈추고, 현지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부로 옮겨온 실질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모든 발걸음은 우리 숲이 다시 숨 쉬게 하고, 미래 세대에게 생명력 넘치는 터전을 돌려주기 위한 든든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금 축소

기후솔루션의 끈질긴 활동에 힘입어, 2024년 12월 한국 정부가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어 2025년 3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바이오매스 발전량 감소 전망이 사상 처음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진짜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응답을 이끌어낸

‘모두베기’ 실상 폭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산 전체를 깎아내는 ‘모두베기’ 벌채의 실상을 공개하고, 기자회견과 국회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성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 3명의 보조금 폐지 촉구와 기후부장관의 제도 결함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글로벌 연대로 이뤄낸 국제적 기후 약속 준수

바이오매스 행동 네트워크(BAN) 등 국제 사회와 손잡고 바이오에너지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한국 대표단에 직접 전달되었으며, 한국이 산림파괴 우려가 큰 바이오 연료 관련 선언(벨렝4x 공약)에 서명하지 않는 과정에 의견을 보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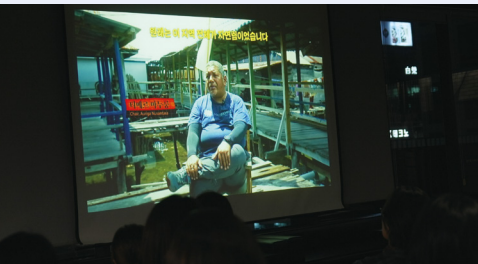
산림 바이오매스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생물 자원을 ‘바이오매스’라고 하며, 이 중 숲에서 얻은 나무 연료를 ‘산림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언뜻 친환경 같지만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함께 태워지며 막대한 탄소를 뿜어

국경을 넘은 숲의 증언,

〈Wood you believe it?〉다큐멘터리 제작

인도네시아 고론탈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 상영, 유튜브에 공개하여 65만 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산림 파괴의 진실을 알렸습니다. 고론탈로에서 발생한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목재 이용법’ 개정안에 지역 사회의 인권 및 환경 보호 기준을 포함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를 본 관객들의 목소리

“현장에 직접 취재 다녀오신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재 펄릿 생산할 때 생기는 탄소는 제조국에서 떠맡고 한국은 0으로 집계된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화석연료 퇴출과
전력 시장의
청정에너지 전환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낮은 전력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대한민국 탈탄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솔루션은 2025년 한 해 동안 화석연료 금융 차단부터 국회 세미나 개최, 시민 공익감사 청구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적인 ‘2040년 석탄 퇴출’을 선언했고, 국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2040년 석탄 퇴출’ 국제 선언의 토대 마련

한국 정부가 브라질에서 열린 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2040년 석탄 발전 퇴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새 정부와 협력하여 글로벌 석탄 전환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글로벌 리더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전국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의 캠페인을 비롯 기후솔루션과 시민사회가 수년간 펼쳐온 활동이 이뤄낸 역사적인 결실입니다.



야구장에 뜬 기후솔루션,
삼척 석탄화력발전 금융 저지

한국의 마지막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의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투자자들을 기만한 삼척블루파워의 허위 공시 관행을 알렸습니다. 나아가 단독 인수사인 키움증권을 겨냥해 고척돔 야구장에서 기습 액션을 진행하고, 인근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에 옥외 광고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기후 위험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증권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융당국에 기후위험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삼척블루파워는 공식 공시 문서에 시민사회의 압박을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공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력 시장 내 화석연료
특혜 폭로 및 불공정 관행 감시

기후솔루션은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발전은 일방적으로 접속을 차단하거나 출력을 제한하면서, 화석연료 발전기에는 과도한 보상과 의무운전 특혜를 제공해 온 불공정 관행을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력망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높은 관심과 정책적 감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전력거래소의 화석연료 보상 축소 규칙 개정안과 기후부장관의 재검토 약속을 견인하며 전력 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1조 원 규모
그린워싱 채권 발행 지연과
석탄 금융 압박

한국 최대 석탄 자산 보유 공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예정보다 수개월 늦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전력공사의 채권이 석탄 자산을 보유한 채 친환경을 표방한다는 점을 싱가포르 거래소에 공식 제보하고, 전 세계 4만 명의 서명을 모아 주요 인수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30여 개 파트너 단체와 함께 국제 투자은행들에 채권 인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도 발송했습니다.

시민 400여 명과 함께한
국민연금 탈석탄 공익감사 청구

에너지 전환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채권 보유액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기후솔루션은 국민연금이 선언했던 탈석탄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국내 시민단체들과 ‘국민연금 기후행동’ 네트워크를 출범했습니다. 나아가 4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공동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국회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이 더 강력한 석탄 투자 제한과 ESG 주주 활동에 나서도록 이끌어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와
국방부 상생 협력의 발판 마련

국회가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 선정과 인허가 틀을 규정한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수년간 기존 인허가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계획적인 입지 지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해상풍력 개발의 주요 과제인 군 협의 과정의 안정적인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국방부 내 해상풍력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민·군 협력 기반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 농업인과 함께 한전과 발전 자회사에
기후위기 법적 책임을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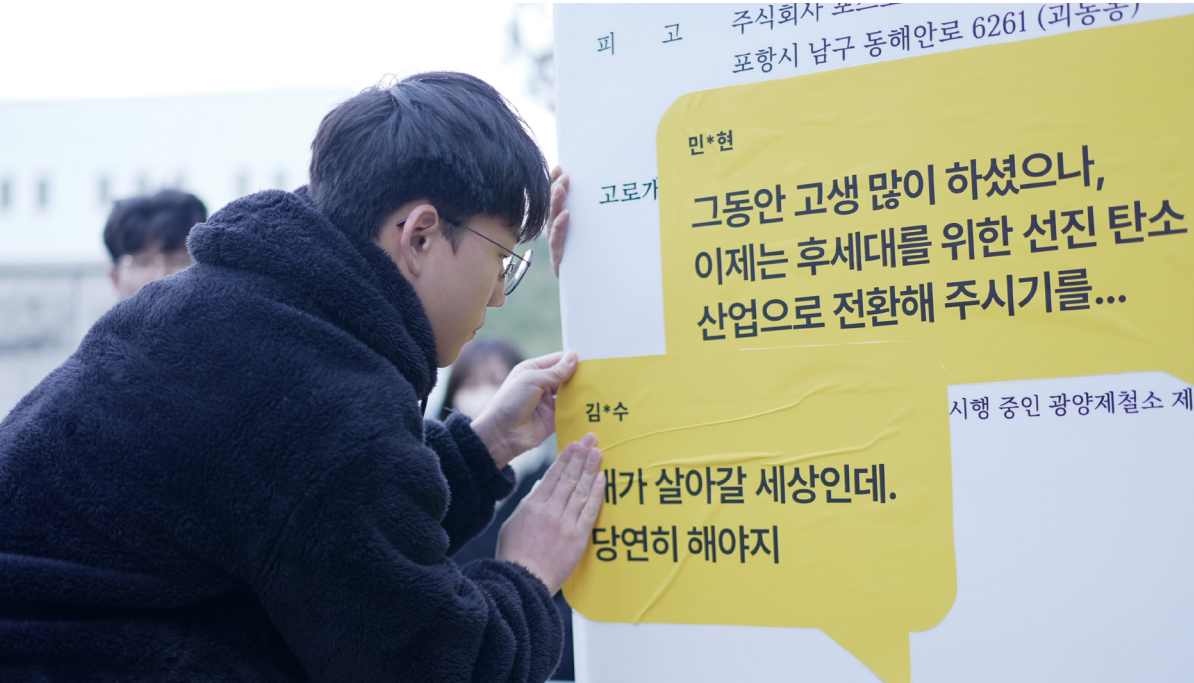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는 농업인입니다. 기후솔루션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5명과 함께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인 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미뤄온 책임을 법정에서 직접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철강 산업의
낮은 관행을 깨고

탄소중립의
길을 열다

대한민국이 ‘2040년 탈석탄’을 선언하며 전력 시장의 전환점은 마련되었지만, 진짜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다배출 산업들은 여전히 탄소 고착화 장벽에 갇혀 있고,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무역 장벽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철강 산업이 계속해서 탄소를 내뿜는 낮은 방식에 머물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한편, 친환경 제철 기술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시장 양쪽의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포스코 고로 재정비 예산 절반 삭감

대한민국 탄소 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가 광양 제2고로를 개수해 수명을 또다시 15년 늘릴 경우, 대한민국 국민 980만 명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1억 3,702만 톤의 탄소가 뿜어져 나옵니다. 기후솔루션은 이 거대한 기후 파괴를 막기 위해 제철소 인근 지역 청소년을 포함한 미래세대 원고들을 지원하여 포스코의 고로 개수에 대한 법적 소송 제기를 도왔습니다. 이 소송은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이후,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소송이자, 기존 고로 생산 체제에 제동을 건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법정 밖에서는 철강벨트 16개 지역 시민사회와 손잡고 고로 개수 철회 및 탄소중립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전달하고, 온라인 서명 운동을 통해 1,000여 명이 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냈습니다. 이와 함께 실시한 포항, 광양, 당진, 순천 등 철강벨트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 71%가 ‘철강 탈탄소화가 지역 경제 생존의 필수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기후솔루션의 활동과 함께, 포스코는 전면 개수에서 부분 개수로 전반적인 고로 개수 전략을 수정하고, 광양 제2고로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에
국가 예산 확보

2025년, 8,146억원 (국비 3,088억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 개발 예산이 승인되며 2026년부터 5년간 사업 진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철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존 고로 방식에 비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후솔루션은 친환경 제철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 주도 투자의 필요성을 정책 논의와 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저탄소 철강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2025년 11월, 대한민국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친환경 철강을 공식 인증하고 저탄소 철강 특구를 신설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전한 재원 확보, 녹색철강기준의 명확화,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공공 및 민간 수요창출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이 흐름을 만드는 데 함께해왔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향한 녹색철강 도입 촉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로 전환하는 자동차 기업들이, 정작 차를 만드는 ‘철강’의 탄소 배출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글로벌 기후·인권 단체 연대체인 리드더차지(Lead the Charge)와 함께하며, 연례 리더보드(Leaderboard)를 통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기후 대응 순위가 각각 9위와 11위에 그쳤음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전 세계 자동차사 중 드물게 자체 철강 계열사인 현대제철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 생산부터 철강 공급망까지 그룹 차원의 통합적 탈탄소 전략 수립과 저탄소 철강 전환을 보다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철강 탈탄소화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며 이러한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 고로란?	하이렉스(HyRex)란?
철광석을 녹여 철을 뽑아내는 거대한 용광로로, 현재 한국 철강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설비입니다. 철을 녹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석탄이 사용되기 때문에, 포스코를 비롯한 제철소들은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5~20년 정도인 고로의 수명을 연장하는 공사를 개수(改修)라고 하는데, 수명이 다한 고로의 개수 계획을 철회시키고 친환경 제철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석탄 대신 수소를 이용해 철을 생산하는 포스코의 친환경 제철 기술입니다. 기존 고로 방식은 철광석을 녹일 때 석탄을 사용하지만, 하이렉스는 수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탄소 대신 물만 배출됩니다. 아직 아직 기술을 검증하는 단계이지만,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구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

가장 어렵지만 꼭 해야 할 숙제니까요.



후원자_이화(영화 수입·배급 전문가)

Q | 기후솔루션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나요?

영화 수입과 배급 일을 오래 해온 터라 평소에도 다큐멘터리 장르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기후 다큐멘터리 상영회 광고를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상영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이 바로 기후솔루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뉴스로만 막연하게 접했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와 목재 펄릿 보조금 문제를 구체적이고 공신력 있는 영상으로 마주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현장에서 치열하게 발로 뛰는 젊은 활동가들의 열정을 보며, '우리 세대가 이 청년들의 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응원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그 자리에서 작은 후원을 신청했습니다.

Q | 상영회에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인도네시아 다큐멘터리 상영회에 이어 모잠비크 다큐멘터리 상영회에 연이어 참석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알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숲과 가스 개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삶이 파괴되는 현장과 그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영상으로 보니 마음속에 묵직한 메시지로 다가왔고, 더 많은 사람이 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영향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니 더욱 뜻깊게 다가왔어요. 영화 일에 오래 몸담은 제 시선으로는 다큐멘터리의 구성이나 메시지 전달 방식에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웃음), 그만큼 기후솔루션이 다루는 주제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점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Q | 기후솔루션 활동가들을 만나며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활동가분들이 정말 젊고 열정적이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가 환경과 기후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편견이었어요. 특히 상영회 관객석에도 기후 문제를 깊이 고민해온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는데, 질의응답에 오가는 질문의 수준이 높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분들이 가까이 모이는 모습을 보며 '기후솔루션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영향력 있는 단체구나'하는 신뢰가 생겼고, 동시

에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움직이는 청년들을 보며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Q | 일상에서 실천하고 계신 기후 행동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며 자란 덕분에 물건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옷 한 벌을 사면 기본 10년은 넘게 입고, 디자인이 지겨워지면 친구들과 교환해서 입기도 하고요. 일회용품이나 배달 음식은 가급적 멀리해요. 특히 주변 친구들이 제 모습을 보고 따라 하기 시작한 저만의 작은 팀이 있는데요. 일상에서 물티슈나 티슈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더라도, 손을 가볍게 닦은 후엔 버리지 않고 화장실에서 조물조물 빨아와요. 그걸로 책상이나 창틀의 먼지를 한 번 더 닦아내고 버립니다. 남들이 보기엔 조금 궁상맞아 보일지 몰라도(웃음), 한 번 쓸 걸 두세 번 쓰면 쓰레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기후 행동은 거창한 지식이 없어도, 내가 당장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Q | 미래 세대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큰 변화보다도 지금의 모습만이라도 미래 세대에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고 지금을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고 우리 세대의 큰 숙제일 것 같아요. 강원도의 침엽수들이 기후 변화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실감이 났어요. 지구가 오늘날만큼 더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어요.

Q | 마지막으로 활동가분들과 동료 후원자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를 전해주세요.

기후위기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묵묵히 길을 만들어가는 활동가들과 후원자들이 있기에 여전히 살 만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거창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씩만 해도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대단한 활동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기후 행동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